

# ‘가장 짧은 예술’... 시대의 감정과 기억 읽혔다

ACC재단 ‘침묵, 그 고요한 외침...’전 가보니

전시 초입서 침묵 키워드...말 대신 ‘응시’  
검열·억압 넘어선 저항 감각 광주와 공명  
상징·은유 담보...독창적 시각 언어 상기

포스터는 흔히 ‘가장 짧은 예술’이라 불린다. 영화와 공연. 전시를 알리기 위해 거리와 벽면에 붙는 이미지는 대개 몇 초 안에 사람의 시선을 붙잡아야 해서다. 정보 전달이 우선인 매체에기에 포스터는 광고와 디자인의 영역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오는 6월 21일까지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1관에서 선보이는 ‘침묵, 그 고요한 외침: 폴란드 포스터’전은 포스터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대와 권력, 인간의 내면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하나의 예술 언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느낄 수 있는 것은 ‘침묵’이다. 화려한 영상이나 거대한 설치작품 없이 벽면을 채운 포스터들은 정적에 가까운 분위기를 만든다. 그런데 그 침묵은 조용하지 않다. 이미지들은 말을 아끼는 대신 더 강하게 응시하고, 함축된 상징과 은유를 통해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으로 기능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시대 속에서 예술가들은 직설 대신 은유와 상징, 풍자와 초현실적 이미지로 시대를 우회해 말하는 법을 익혔다. 검열을 피해 가면서도 현실을 비틀고 풍자했던 이들의 작업은 결국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는’ 독특한 미학을 만들어냈다.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그 흐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포스터 속 인물들은 얼굴이 지워져 있거나, 신체가 왜곡돼 있으며, 때로는 일상적 사물이 낯선 방식으로 결합돼 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작품도 있지만, 상당수는 쉽게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관람객은 이미지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되고, 자연스럽게 ‘왜 이런 형태를 택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설명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해석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이 전시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폴란드 포스터 특유의 ‘불완전함’이다. 당시에는 회화 작가들이 포스터를 직접 손으로 그리거나 석판화와 오프셋 인쇄 기법을 통해 대량 생산했다. 거칠고 불균형한 감각은 시대의 긴장과 만나 인간의 불안함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작용한다.

카펫 위로 폴란드 포스터화파를 이끈 10명 대 속에서 예술가들은 직설 대신 은유와 상징, 풍자와 초현실적 이미지로 시대를 우회해 말하는 법을 익혔다. 검열을 피해 가면서도 현실을 비틀고 풍자했던 이들의 작업은 결국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는’ 독특한 미학을 만들어냈다.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그 흐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포스터 속 인물들은 얼굴이 지워져 있거나, 신체가 왜곡돼 있으며, 때로는 일상적 사물이 낯선 방식으로 결합돼 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작품도 있지만, 상당수는 쉽게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관람객은 이미지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되고, 자연스럽게 ‘왜 이런 형태를 택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설명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해석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이 전시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폴란드 포스터 특유의 ‘불완전함’이다. 당시에는 회화 작가들이 포스터를 직접 손으로 그리거나 석판화와 오프셋 인쇄 기법을 통해 대량 생산했다. 거칠고 불균형한 감각은 시대의 긴장과 만나 인간의 불안함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작용한다.

표현했다. 붉은 배경과 푸른 눈 화장. 검은 머리의 대비는 화려하면서도 불안한 정서를 동시에 전달한다. 은유와 암시, 유머, 호기심과 상상력, 단순성과 대비 등 10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폴란드 포스터의 미학을 돌아보는 공간. 에릭 리빈스키, 다데우스 트렙커프스키 등 폴란드 포스터화파를 대표하는 10인의 거장을 조명하는 색션은 선전과 검열의 시대 속에서도 작가들이 어떻게 독자적 시각 언어를 구축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1950년대 포스터가 실제로 부착됐던 바르샤바 거리를 재현한 색션은 작품을 당시의 생활 공간 속에서 바라보게 한다. 포스터가 미술관 벽에 걸린 이미지가 아니라 도시의 거리와 일상 속에서 대중과 만났던 매체였던 점을 강조한다. 이어 사회주의 리얼리즘 체제에서 제작된 포스터와 폴란드 포스터 연표 등을 통해 전시의 역사적 맥락을 짚는다. 빅토르 고르카의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에서는 폴란드 포스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돼 전시의 이해를 한층 넓힌다.

전경과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 문화적 저항을 통해 자유를 갈망했던 폴란드의 역사는 1980년 5월 광주가 겪었던 시간과 맞닿아 있다. 직접 말할 수 없던 시대. 예술은 종종 상징과 은유를 통해 시대의 감정과 기억을 남겨왔다. 그런 점에서 검열과 억압 속에서도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한 폴란드 포스터의 우회적 표현 방식은 광주가 지닌 역사적 감각과도 깊이 공명한다.

글·사진 정재경 기자 view2018@



10가지 키워드로 폴란드 포스터를 조명하는 ‘폴란드 포스터 키워드 10’ 색션 전경

## 타지역 작가와 연결 시각적 대화 ‘시동’

광주신세계갤러리 윤세영·오세린 2인전  
‘지역 작가×타지 작가 1:1 매칭 프로그램’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윤세영 작가와 오세린 작가가 참여하는 2인전 ‘조금 다른 세상에서’를 지난 4월 24일 개막,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진행하는 ‘지역 작가×타지 작가 1:1 매칭 프로그램’의 하나로 2025년 ‘강운, 박선희: 푸른 숲’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다. 서로 다른 지역과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를 연결해 새로운 시각적 대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윤세영 작 '생성지점'



오세린 작 '여름밤'

윤세영과 오세린 작가는 광주와 서울, 회화와 도자라는 서로 다른 기반에서 작업을 시작했지만, 현실의 경계를 다시 바라보고 보이지 않거나 인식되지 않았던 세계의 층위를 공통적으로 탐색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외계 행성이나 깊은 바다, 거대한 동물들 연상시키는 풍경은 단순한 상상의 이미지에 머물지 않는다. 전시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풍경을 통해 주변에 존재하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윤세영 작가는 소리와 호흡, 리듬과 같은 비가시적인 요소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생성지점’ 연작에서는 삶과 죽음을 비롯한 세계의 양면성을 상징적 풍경으로 풀어내고, ‘리듬’ 연작에서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씨의 연주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팽창과 수축, 진동의 흐름을 화면 위에 구현한다. 장치 위에 석재와 분체, 흑연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작업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흐름을 물질적으로 드러내며, 우주를 연상시키는 푸른 색조의 회화를 통해 감각의 풍경을 제시한다. 이어 오세린 작가는 원본과 복제, 실제와 가상, 인간과 자연 등 이분법적 구조에 주목하며 그 경계가 어긋나고 충돌하는 지점을 탐색한다. 결과물은 심해 생태계나 광물을 연상시키는 입체 작업으로

## 작가가 던지는 시각 차이...관객 새 사유 촉발

양림미술관 ‘관찰자의 시선’전...10일까지 6명 작가 출품

작가가 다르니 당연히 다른 시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처럼 6명의 작가가 각기 바라본 세상에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지난 4월 29일 개막, 오는 10일까지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열린 ‘분타카머(Wunderkammer, 호기심의 방)’의 정기전 ‘관찰자의 시선’ (The Observer's Eye) 전이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6개의 서로 다른 ‘눈’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대상을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넘어, 관찰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예술적 실천으로 변모하고 각기 다른 세계관으로 확장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이번 전시는 양림미술관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6명의 작가가 던지는 시선의 기록들이 관객들에게 새로운 사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관람객 스스로가 일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정교한 렌즈’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시에 참여한 6명의 작가는 동일한 시대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각자가 포착한 세계의 단면을 상이한 예술적 언어로 풀어낸다. 타인이 보내는 휴식의 소리에

서 보이지 않는 지형도를 그려내는 작업부터, 도심의 사소한 틈새, 자연의 순환하는 리듬, 그리고 인간의 내밀한 관계를 응시하는 작업까지 다채롭게 구성된다.

작가들에게 관찰은 대상에 깊이 동화되는 과정인 동시에, 철저한 타자가 돼 본질을 꿰뚫는 수행적 행위로 나타난다. 관객들은 작가의 시선을 통해 일상의 익숙한 풍경이 얼마나 낯설고 경이로운 존재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 ‘시선’은 일방적인 응시에 머물지 않는다. 작가들에 의해 채집되고 재구성된 기록들은 캔버스 위의 드로잉, 입체적인 설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매체로 발현돼 관객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진다. 6명의 작가가 각각의 정교한 렌즈로 담아낸 이번 작업들은 익숙했던 일상을 관찰이라는 여가기를 거친 ‘호기심의 방’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작가로는 김지아, 유지원, 이세현, 이인성, 임용현, 정승원씨 등이며, 전시에는 시운드 드로잉과 설치, 미디어, 입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출품돼 선보이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분타카머’ 전시장 전경

## 밀양아리랑으로 채우는 토요일 어린이 세상

‘가무극 날 좀 보소’ 내일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은 9일 오후 3시 국악원 전악당에서 밀양아리랑예술단의 ‘가무극 날 좀 보소’를 선보인다. ‘가무극 날 좀 보소’는 밀양지역 문화유산인 ‘밀양아리랑’과 전통 놀이 등을 활용해 전통 가락과 춤사위를 접목시킨다. 아이들의 시각으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종합극이다. 공연을 준비할 밀양아리랑예술단은 밀양시문화도시센터가 운영하는 지역 대표 예술단체다. 공연은 정월대보름에 주로 남부 지역에서 행하는 민속놀이 ‘강강술래’를 시작을 알린다. 국가무형유산 밀양백중놀이의 호쾌하고 자유스러운 ‘밀양양

반춤’을 비롯해 밀양아리랑과 정월대보름의 선비정신을 집목한 ‘정필재아리랑’, 줄타기와 아리랑을 소재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위어자아리랑’으로 무대를 꾸민다. 이어 새터가을굿놀이예 재미와 이야기를 넣어 어린이 버전으로 새롭게 구성한 ‘새터아리랑’과 밀양아리랑 가락에 밀양의 전통 춤사위를 접목시킨 ‘아리랑동동’, 마지막으로 전통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리랑 좋아’를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무료. 정재경 기자 view2018@